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15 중국 불교가 피어난 땅, 낙양

낙양 불교 화려함 극에 달하다

낙양을 얘기할 때 빼놓고 지날 수 없는 사찰이 하나 있다. 바로 백마사(白馬寺)다. 중국불교 최초의 사찰로 불리는 백마사는 많은 전설을 담고 있다. (낙양가람기)는 백마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백마사는 한나라 명제가 세웠다. 불교가 중국에 처음 들어온 초기 이 절은 서양문 밖 삼리, 어도의 남쪽에 있었다. 명제의 꿈에 금빛 몸을 한 신인이 나타났는데 키가 일장 육척이었다. 호인(胡人)들이 부처라고 불렀다. 사신을 서역에 보냈더니 불경과 불상을 구해 왔다. 당시 흰 말이 불경을 실어 왔기 때문에 절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사실 백마사 명칭과 관련된 설화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 최초의 사찰이 백마사라는 점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도에서 유래한 불교가 중국 땅에 사찰을 짓고, 전법을 시작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낙양에서 불교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북위 시대에는 낙양 안에 많은 숫자의 가람이 가득 있었다. 임성왕 정(景)의 상소문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임성왕 정은 낙양의 불사가 너무 많아 폐해가 커 그 규모를 줄이고자 당시 황제에게 상소

를 올렸다. 임성왕은 상소문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깊고 오묘한 것이어서 승려는 세속 밖에 깨끗하게 머무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므로 화려한 사찰을 조영할 필요가 없다. 요즘은 사사로이 건립한 사찰이 100개에 달한다. 도성과 도성 바깥의 사찰을 조사한 결과 그 수는 500개 나 됐다'고 했다.

임성왕의 상소는 혼란해 지는 불사 건립에 제한을 두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지나친 불사로 낙양의 귀금속 값은 치솟았고 백성들이 곤궁함을 느낄 정도로 노동력이 수탈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소문도 잠시 호태후의 섭정 하에 낙양 불교문화의 화려함은 극에 달한다. 호태후 섭정 시 당시 흉노족 이주영(爾朱榮)이 낙양을 공격하는데 낙양의 많은 귀족이 전사했다. 그 뒤 귀족의 저택은 승려들이 머무르는 곳이 됐고 대부분의 귀족저택은 사찰이 됐다.

이후에 호태후의 섭정 시기에는 비구니 교단이 번성한다. 낙양에는 많은 비구니 사원이 건립됐는데 선무제 때는 요광니사(遙光尼寺)가 건립된다.

선왕인 효문제(宣)는 낙양에 천도 시 성안에는 영녕사, 성 밖에 비구니 사찰 한 개만을 건립하고 법으로 정했다. 이러한 선대의 법령이 깨진 것이다.

이 사찰에는 효문제의 폐황후 범씨와 선무제의 황후 고씨가 비구니가 돼 거주했다. 왕실 여성들의 출가를 보아도 당시 불교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선무제 때 건립된 경명사(景明寺)는 화려함으로 유명하다. 호태후는 이곳에 7층탑을 지었는데 상륜부의 금빛 찬란함이 구름 위에 빛났다 한다.

경명사에는 부처님오신날 풍경이 기록돼 있는데 4월 7일에 수도의 모든 불상이 모두 경명사로 모여들었다. 모인 불상은 대략 1,000여 구였다. 승려들이 모이고 신도들은 꽃을 바치고, 마치는 길을 매우 북적거렸다. 그때 서역의 사문들이 이를 보고 부처

님의 나라라고 외쳤다'고 전한다. 낙양 불교의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낙양 백마사는 후한 명제 시절 최초로 중국에 온 가섭(迦葉摩騰)·축법란(竺法蘭) 스님이 머물렀던 절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의 모습은 당시 모습을 복원한 것이다.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0



화엄사 만월당앞에서

절집에 들어 극락 아닌 곳이 없겠지. 당우마다 각자 이름이 걸려있는 것은 아직도 이름 없인 아무래도 갈 수 없는 미혹할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해 늦은 가을날, 그날도 그렇게 절을 찾았다. 구례 화엄사. 각향 전 지붕 위로 산새들이 날고, 만월당 처마 밑에는 예쁘게 깎아 넣은 감들이 주련처럼 매달려 있었다. 바람 하나에 매달려 다니는 산새들이나, 하루하루 계절에 매달린 감들은 그래도 한 곳으로 마음을 정한 듯했다.



사진부 차장 wanihollo@hanmail.net

지방(十方)에 도량(道場) 아닌 곳이 없지만, 굳이 불전(佛殿)을 찾는 것은 깎아놓은 부처님이라도 보아야 하는 중생심 때문일 것이다. 눈으로 부처님을 만나려 다니는 것이다. 그래도 중생의 일상 중에 그보다 기대되는 일이 또 있을까.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2도 석가불희유사바토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삼화는 지방제불이 사바세계가 오락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고행 정진으로 보리를 얻어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것은 심히 희유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내용을 판각한 것이다.

화면의 왼쪽 끝에 전각이 있고 그 전각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을 피리 북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앞에는 전각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과 구름위에 떠있는 4분의 부처님이 묘사되었다.

이 도상은 14번째 목판 원판의 전반부 일부분에서 14번째의 목판 원판 후반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리불이여,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하고 또 찬탄하는 것과 같이 저 모든 부처님도 역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중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하고 찬탄하시니라. 사바세계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매우 어렵고 희유한 일을 능히 하시고 계시느니라. 저 사바세계에는 세상이 무섭고 중생들의 식견이 옹졸하며 번뇌가 치성하고 중생의 근성이 사악하며 수명이 짧은 다섯 가지의 혼탁함이 만들어져 있는 악한 세계인데도 그 곳에서 최고의 깨달음인 아노다라삼악삼보리를 증득해 부처가 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믿기 어려운 극락세계의 아미타부처님에 대해 설법을 하시고 계시느니라.'고 하시느니라."

(舍利弗 如我今者 稱讚諸佛不可思議功德 彼諸佛等 亦稱讚我不可思議功德 而作是言 釋迦牟尼佛 能為甚難希有之事 能於娑婆國土五濁惡世劫濁見濁煩惱濁衆生濁魔濁中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為諸衆生 說一切世間難信之法)

이 본문을 간추려보면 번뇌 망상이 만연된 오락락세에서도 최고의 깨달음을 증득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믿기 어려운 극락세계의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공덕을 찬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역설적으로 오락락세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옳은 것을 옳게 보지 못하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이요,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믿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인연가는 죽어야 되는 유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모든 부처님들이 간곡하게 일러주시는 극락왕생의 법문을 믿지 않다가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2도: 석가불희유사바토장엄(釋迦佛希有娑婆土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cm.

불교달력·불교용품·불교서적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Dongjin Gihwuk featuring various Buddhist products like books, calendars, and gifts with prices and descriptions.

Advertisement for Giban shoes, highlighting their ergonomic design and health benefits, with a list of features and prices.